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 연령범주별 분석*

이여봉**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집된 2008년도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유배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금노동분담과 가사노동분담 및 여가공유활동 등의 다차원적 부부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성장기 부모 간 친밀도와 여타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였다. 연령에 따른 생애발달단계의 특성과 출생집단별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각 연령대별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변수간의 연관성이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자 함이다. 관계만족도와 결혼행복도로 측정된 두 변수로써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하고 관련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성장기 부모의 친밀도가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면서 세대 간 전이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임금노동차원에서 결혼행복도와 의 관련성에서는 30-50대에서 남편출벌이 가정의 아내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맞벌이 여성이지만, 관계만족도와 의 연관성에서는 40대에서 맞벌이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다음이 남편출벌이 가정의 아내로 나타나면서 50대 여성과 차별화된다. 가사분담 차원에서는 30-50대 여성들에서 자신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결혼행복도 및 관계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가사분담의 평등성 자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0대 연령층의 경우 관계만족도와 의 연관성에 관해서뿐이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결혼행복도 및 관계만족도가 높아서, 여가활동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시된다. 나이든 연령대일수록 건강 및 가족경제상황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여가공유활동의 빈도가 낮으며 결혼만족도가 낮다. 이는 연령이나 결혼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과 경제상황 및 여가공유활동 등의 여타 여건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친가족적 기업문화와 사회정책 등을 통한 지원이 함께 할 때, 가족과 사회 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핵심단어: 결혼만족도, 관계만족도, 결혼행복도, 임금노동분담, 가사노동분담, 여가공유활동

I. 들어가며

결혼이 정서적 관계로서의 성격이 짙어진 오늘날, 결혼에 대한 만족감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부부는 긴 시간에 걸쳐서 상호

* 본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1차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2009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의 충고를 통해 연구의 진전을 이루었고 심사자 선생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을 밝히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 yblee@kangnam.ac.kr

작용하면서 공동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그리고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결정된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내면화한 관념과 지나온 삶 동안의 경험 및 환경 등에 따라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의 종류 및 수준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사회 변화의 물살이 빠를 때 젊은 연령대는 변화의 선두에 서고 나이든 연령대는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젊은 연령대의 시각과 나이 든 연령대의 판단은 종종 다르다. 이는 인간의 생애발달단계별 특성 차이로 인한 연령효과(age effect)로 설명된다. 그런데 나이 든 세대가 20-30년 전에는 오늘날의 청년층과 똑같이 사고하고 판단했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달단계별 특성 외에도 매 단계에서 만나는 환경과 경험이 중요한데, 과거의 청년들과 오늘날의 청년들은 상이한 환경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니기 때문이다. 출생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삶의 역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특성을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로 설명한다.

가족과 관련된 삶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고, 가족역할 및 관계에 대한 의식은 평등주의 사고의 유입과 더불어 가부장성의 약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빨리 흡수한 것은 약자였던 여성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이었다. 그래서 부부의 삶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여자들의 인식과 남자들의 인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출생집단들 특유의 경험이나 생애발달단계의 차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인식하는 결혼과 나이든 여성들이 인식하는 결혼은 다르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에서도 특정 연령범주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이고 전 연령층에 일반화될 수 있는 공통적 경향은 무엇인지에 관한 탐색은 중요하다. 여성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각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다차원적 부부역할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공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부부관계에 국한하면,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부부라는 이차적 관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선호인데(조혜선, 2003), 이는 배우자

간의 관계만족도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인식으로 확장할 경우(박은옥, 2001),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 및 친족 그리고 상황적 조건 등 결혼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등의 주관적 감정으로 정의된다(Hawkins; 정현숙, 2001b에서 재인용).

부부관계에 한정하든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든,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해 본인이 가진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동일할지라도 개인이 중요시 하는 영역에서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족도는 낮을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서 기대수준이 충족될 경우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온 삶의 조건과 경험 뿐 아니라 현재의 생애발달단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기대수준 및 기대 영역은 다를 수 있다.

결혼기간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높아서 종종 결혼기간이 연령을 대체하는 변수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연령이 생애발달단계 효과와 출생집단 효과를 포괄할 수 있는 변수임에 반해, 결혼기간은 가족발달단계 효과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구별된다. 연령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추이에 관해서 기존 연구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만족도와 이를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연령대별로 상이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편적이다(이재경·이은아, 2003).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기 동안 감소하며 자녀가 모두 성장해서 독립하면 다시금 개선된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Story, Berg, Smith, Beveridge, Henry and Pearce, 2007; Atchley, 1992; Berry and Williams, 1987; Rollins and Cannon, 1974), 결혼만족도가 결혼 초기에 가장 높고 결혼연수가 거듭될수록 감소하여 중년기에 이르러 가장 낮아진 상태로 노년기까지 계속된다는 견해(Blood and Wolfe, 1960)도 제기된다. 또한 결혼 초반에는 결혼전의 기준과 실제의 결혼생활을 비교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저하되지만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상대에게 적응하여 타성으로 살아간다는 지적도 있어서(조정문, 1995),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결혼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여성은 결혼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남성은 후기로 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유영주, 1993).

세대를 분류하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경과 이은아(2003)는 출생집단에 주목하여 60년대 이전의 전후(戰後)에 성장하고 현재 양육부담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40대 이상 연령층과 40대 미만(2003년 시점에서 볼 때)으로 이분하였다. 강진경 등(강진경·신수진·최혜경, 2001)은 결혼지

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주기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김경신(1998)과 최정혜(1999)는 노년기와 중년기 및 청년기로 삼분하였고, 김미령(2008)은 3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10년 주기로 4분하였다. 김미령(2008)과 강진경 등(2001)의 구분은 10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작위적이라는 한계를 피할 수 없지만, 모든 대상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고 여러 범주화하여 세대별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부부역할 분담 및 공유

부부역할을 세 축으로 크게 나누면, 외부에서의 노동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가져오는 임금노동, 가정 안에서의 소비를 위한 활동과 보살핌 노동, 그리고 자유롭게 즐기기를 위한 휴식을 부부가 함께 나누는 여가공유활동이다.

맞벌이가 결혼만족도를 낮춘다는 견해와, 오히려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전자는 이중역할로 인한 아내의 초조감과 죄책감과 생계 부양을 전담하지 못하는 남편이 느끼는 자아손상감 때문에, 부부갈등이 야기되고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본다(Voydanoff, 1987; 한경미, 1995; Kessler and McRae, 1982). 반면에 후자는 전통적 성역할 분담이 완화됨으로써 양 배우자가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공유하고 가사 및 육아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부간 이해와 애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김미하, 1990; 이은희, 2002; 조성은·정지영·윤소영, 2006; Kessler and McRae, 1982; White, 1999). 한편 아내의 취업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상존한다(Keith and Schafer, 1985).

가사란 가족원들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임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가내 노동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는 식사준비나 장보기, 청소, 빨래, 설거지 등과 같은 가사영역만을 가사노동시간에 포함시켜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의 상당부분은 자녀돌보기로 대표되는 감정노동이다(한경혜·장미나, 2009). 신혼기나 노년기에 비해 돌봄노동이 부가되는 자녀양육기에 가사노동 부담이 큰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가족주기에 따라 가사나 자녀양육 등의 분담에 대한 상황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이은희, 2002), 가사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가족주기에 따라 상이하다. 그런데 양 배우자가 부부역할을 공평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클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정연, 1987; 이정숙, 1990). 반면에 부부관계에서도

다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고 느낄 때,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ichaels; Edwards, and Acock, 1984).

한편 여가활동이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기분 전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만족을 얻는 능동적 과정이다(허준수, 2002; 김필숙·김태현, 2004). 오순환(2000)은 여가활동을 TV 시청이나 인터넷 게임, 영화, 독서 등의 정적 활동과 스포츠 활동 등의 동적 활동으로 이분한 바 있다.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여가의 경우엔, 개인적인 여가활동이 줄 수 있는 기분 전환과 에너지 충전 효과 외에, 부부간 긍정적 상호작용 기회의 제공이라는 중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의 길이가 결혼만족도와 갖는 상관성은 비교적 적은 반면(Kingston and Nock, 1987), 부부공유여가활동의 빈도가 갖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이여봉, 1997).

2) 여타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에는 다양한 주장들이 병존한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한편(박태은, 1983; Amato and Booth, 1995; Zvonkovic, Schmiede and Hall, 1994), 남편은 진보적이고 아내는 보수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다(윤경자, 1997). 또한 아내의 성역할 태도는 남편이나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고(조정문, 1995),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역시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이은희, 2002). 이러한 와중에서도 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양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가 유사할수록 그리고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이다(이은희, 2002; 이여봉, 1999; 조정문, 1984, 1995).

부모는 자녀가 가장 처음 만나는 사회화의 매개체여서,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에 의해 관찰되고 모방되면서 대를 이어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성장기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 자신의 결혼만족도 역시 높은 반면, 성장기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부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하상희, 2008; Amato and Booth, 1995). 이처럼 기혼자녀의 부부관계는 성장기에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 간 연관성은 여성의 경우에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춘애, 1996). 그래서 현재의 부부관계 특히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이해하는데 아내 자신의 성장기 부모 간 친밀

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건강과 결혼에 관해서는, 주로 결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다 (차승은·한경혜, 2003; 김정선, 2000; Marks, Lambert and Choi, 2002; Simon, 2000; McRae and Brody, 1989; Gove and Hughes, 1979; Bernard, 1972). 그런데 개인의 건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가족의 역할과 상호작용 모습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래서 건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고 가족당 평균자녀수가 급감했지만, 여전히 자녀는 부부와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결혼만족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 자녀는 양육과 관련된 시간적·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해서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이해된다(Spanier and Lewis, 1980). 게다가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부의 행위를 제약하는 권력원이자 독립성을 침해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서 결혼만족도를 저해한다는 것이 서구 연구의 정설이다(Lamanna and Riedmann, 2009). 한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녀의 실질적 영향과는 별개로, 어린 자녀의 양육기에는 상호관계가 나쁜 부모도 혼인을 해소하지 않고 결혼관계 안에 남아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기의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이론도 가능하다(이여봉, 2008).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존재는 '가족의 완성'이라는 정서적 위안을 주고 결혼생활에 활력을 주어서 결혼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이숙현, 1988; 조정문, 1995에서 재인용).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정상'이라는 일반적 통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의 의미가 서구와 다르므로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를 수 있다.

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양 배우자 각각의 수입과 그 외의 가족소득 및 가족재산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객관적 수입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족경제 안정도가 결혼만족도에 강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일관적이다(임정빈·고보선, 1995; 전춘애·박성연, 1993). 특히 가족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경제적 여유 및 압박 정도를 통제변수로 활용하려는 본 연구의 경우, 양 배우자의 객관적 수입이나 가족 총수입만으로는 짚어낼 수 없는 지출에의 필요까지 반영하는 측정방안으로서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정경제 안정도가 적합하다.

교육수준이 높음은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박은옥, 2001; 고정자·김갑숙, 1999; 전춘애·박성연, 1993; 이정연, 1987; 최연실·육선화, 1987). 그런데 양 배우자의 교육수준 간 상관관계

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여성의 교육수준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으로써 남편의 교육수준에 대한 대략적 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 이론적 배경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기 부모 간 친밀도와 여성의 성역할 태도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더불어 양 배우자의 임금 노동분담과 가사노동분담 및 여가공유활동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주목한다. 성장기 부모 간 친밀도와 여성의 성역할 태도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이 과거의 경험이거나 혹은 개인적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힘든 고정적 특성들인 반면, 임금노동분담이나 가사 및 육아분담 그리고 여가공유활동은 현재 시점에서 부부 쌍방의 노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행동적 영역이다. 이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부부간 역할구도를 어떻게 조정해 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부부역할수행 양상과 성장기 및 현재의 가족관련 변인들이 각 연령대별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기여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이는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이어진다.

연구문제 1: 연령대별 패턴

- 1-1. 인구학적 변인, 성장기 부모 간 친밀도, 성역할 태도, 부부역할분담 및 공유, 결혼만족도가 연령대에 따라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 1-2. 인구학적 변인, 성장기 부모간 친밀도, 성역할 태도, 부부역할분담 및 공유 등의 변수들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연관되는 모습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상이한가?

연구문제 2: 부부역할 공유와 결혼만족도

- 2-1.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직업유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2.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 가사/육아 분담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가?
- 2-3.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활동 빈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가?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도로 2007년 9월에서 2008년 2월 사이에 수집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05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화 정도,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 주거형태별 가구비율과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가구의 연령, 그리고 가구의 성별을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한 결과, 9,084가구의 20-65세 여성 10,013명을 초년도 표본으로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현재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풀타임 직업에 종사하는 6,431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변수가 내포하는 의미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연령대별 표본의 비율이 현재 우리 사회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분포와 일치하지 않아서 모든 연령대를 통합하여 분석할 경우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20세에서 29세, 30세에서 39세, 40세에서 49세, 50세에서 59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다섯 연령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결혼만족도와 취업, 가사/육아, 여가공유활동 등 주요 관심변수들에 관하여 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을 통해 연령대간 유사성 및 차이점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관련변수들이 결혼만족도와 연관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연령대별로 비교하였다.

2) 변수측정

(1) 결혼만족도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관계만족도와 단일문항의 결혼행복도의 두 척을 병행하여 결혼만족도 개념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① 관계만족도: 정현숙(2001b)의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고려한 세 척의 관계적 차원(교류적 과정, 응집성, 정서적 과정)에 개인적 만족수준인 '배우자에 대한 사랑'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의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만족수준으로 추가한 '사랑'은 세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인식되면

서 오히려 각 세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가.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지?” - 교류적 과정

나.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한지?” - 응집성

다. “남편과의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하는지?” - 정서적 과정

라. “남편을 사랑하는지?” - 개인적 만족수준

상기 항목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4)”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이다. 4개 항목에 관한 응답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 연령범주에서 4항목 모두 0.80-0.85 사이의 성분적재값을 고르게 가지는 1개의 요인(eigen value=1 기준)으로 묶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항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여 전 연령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가법척도화하였다. 이들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30대와 60대에서는 0.82이고, 그 외의 연령범주에서는 0.84이다.

② 결혼행복도: 결혼 생활에 대한 느낌을 묻는 단일문항에 관해 “매우 불행하다(1)”에서 “매우 행복하다(7)”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간격변수로 간주하여 ‘결혼행복도’로 개념화하였다. 결혼행복도는 결혼만족도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어서, 대체변수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평가되어 왔다(Campbell, Converse and Rodgers, 1976).

관계만족도 척도에 부가하여 단일문항 변수인 결혼행복도를 포함하기로 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첫째, 다항목 척도를 구성할 때 발생하는 내용중복(overlapping content)의 위험성 및 오차상관의 부풀림에 대한 경고를 간과할 수 없다(Drolet and Morrison, 2001; Fincham and Bradbury, 1987). 둘째, 문항별로 응답성향이 양 극단을 오가는 응답자와 모든 문항에 중간 정도 수준의 일관적 응답을 하는 두 경우에 동일하거나 근접한 점수로 표기될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Fincham and Linfield, 1997). 그리고 셋째, 부부간의 관계에 국한된 관계만족도 개념에서 빠뜨리고 넘어가는 여타 가족상황에 관한 주관적 느낌 즉 자녀나 친지와와의 관계 및 일상적 가족상황에 관한 감정을 짚어내기 위해서이다.

(2) 부부역할 분담 및 공유

① 임금노동분담: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풀타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부의 임금노동분담 구조를 맞벌이, 남편홀벌이, 그리고 아내홀벌이로 구분된 3개의 명목변수로 측정하였다¹⁾. 그리고 회귀

모형식에서, 아내홀벌이 가구를 준거집단으로 하고 맞벌이와 남편홀벌이 가구를 각각 독립된 가변수로 처리하여 포함하였다²⁾.

② 가사분담: 본 분석에서의 가사분담 자료는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 주 동안 아내가 가사 및 육아에 투자하는 총시간(weekly hour)과 가사/육아에 부부가 투자하는 시간 중 아내가 투자하는 비율을 '가사분담' 개념으로 관찰하였다. 이는 비율만으로는 가사분담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절대량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기초한다(Lee, 2003). 그런데 가사비율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서 분석에 포함될 경우, 양적 평등(0.5)을 기준으로 하여 가사와 육아의 필요에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의 양 방향으로 분기하는 호형 기능(spline function)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0.5를 기준이자 저점으로 하여 아내의 비율이 많을수록 1에 근접하도록 코딩한 변수와 남편의 기여도가 많을수록 1에 가까워지도록 코딩한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였다. 이는 "가사분담은 아내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성에 있어 '양적 평등'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아내가 수행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아내가 느끼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례(n=90)를 분석에 포함시키되, 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③ 부부 여가공유활동: 집안의 대소사와 같은 의무에 기초한 공식적 활동이 아니라 부부가 자신들만의 여가활동의 빈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가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정적인 여가와 동적인 여가로 개념화한 오순환(2000)의 분류틀에 입각하여, 다음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 가. 한 달에 몇 번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는지?
나. 한 달에 몇 번 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는지?

-
- 1) 주당 근무시간에 관한 응답이 주당 1시간이라는 응답에서부터 매우 넓게 분포되어서, 취업여부를 명목변수로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작적 구분이 필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을 풀타임 근무로 가정한다. 그런데 본 표본의 빈도분포를 관찰한 결과 상당히 많은 경우 주당 35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을 보이면서 그 미만의 응답과는 현격히 차별화되었다. 그래서 3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여부를 구분하였다.
- 2) 무직으로 범주화된 경우는, 실상 주당 근무 시간이 0라는 응답자 뿐 아니라 1시간 근무자에서 34시간 근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부부 모두 무직으로 범주화된 표본 내부의 이질성으로 인해 해당 범주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표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두 항목 중 전자가 비교적 정적인 여가활동(가)이라면 후자(나)는 동적인 여가활동이어서, 두 항목간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전체표본의 Pearson's $r=0.33$). 그러나 두 항목에 관한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각각 0.82의 성분적재 값을 가지는 1개의 요인((eigen value=1 기준)으로 묶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상기 두 항목에 관한 응답을 가법척도화하였다(Cronbach's Alpha=0.46).

(3) 성역할 태도

다음의 4문항에 관하여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을 가법척도화하여 평균치를 성역할태도로 개념화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대로 4 항목 모두 보수적 응답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도록 코딩하였으므로, 성역할 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 사고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4개 항목들 간 상관관계에 기초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0.69이다.

- ①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②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③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 ④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4) 성장기 부모 간 친밀도

응답자가 15세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어떠했는지에 관해, “매우 좋지 않은 편이었다(1)”에서 “아주 좋은 편이었다(5)”에 이르는 5점 척도에 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회상에 근거한 자료로서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자가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은 타당하다.

(5) 사회 인구학적 변수

- ① 본인학력: 응답자가 받은 공적 교육기간을 연수로 환산하여 포함하였다.
- ② 본인건강: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매우 좋지 않다(1)”에서 “매우 건강하다(5)”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③ 가족경제 상황: 현재의 가족경제 상태에 관하여 “매우 어렵다(1)”에서 “매우 여유가 있다(5)”에 이르는 5점 척도에 관한 응답에 기초하였다.

- ④ 결혼기간: 2008년 8월을 현재시점으로 하여, 현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을 연수(years)로 포함하였다.
- ⑤ 동거 친자녀수: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총수를 포함한다. 물론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연령대별 분석의 경우 부모의 연령대로 미루어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IV. 분석결과

1. 연령대별 변수들의 특성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42명이고 30대가 2,288명이며, 40대가 2,022명, 50대가 1,302명, 그리고 60대가 477명이다. 각 변수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하여 변량분석(ANOVA)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결혼만족도

관계만족도 척도의 4개 구성항목들과 결혼행복감 모두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진다(<표 1> 참조). 이를 출생 집단의 차이로 해석한다면,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20대는 10년쯤 후에 지금의 30대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이고, 20년쯤 후엔 현재의 40대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

그런데 생애발달단계 및 가족주기적 특성으로 설명할 경우, 자녀양육기에 해당

<표 1>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 관련변인의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Scheffe test)

	관계만족도				결혼행복도
	대화빈도	견해유사성	성관계만족감	사랑한다	
20대	3.3a	2.9a	3.1a	3.4a	5.8a
30대	3.1b	2.9ab	3.0b	3.3b	5.5b
40대	3.0b	2.8bc	3.0b	3.1c	5.2c
50대	2.9c	2.7c	2.8c	3.0d	4.9d
60대	2.8c	2.7c	2.7c	2.9d	4.9d
F값(df)	39.8(4)***	13.2(4)***	50.5(4)***	81.0(4)***	77.9(4)***

주 1) +p<0.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a, b, c, d를 부가하여 평균 차이를 표시하였다. 즉 a와 b 그리고 c는 각각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의미한다. ab는 양쪽 어디와도 평균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는 30-40대보다 50-60대 여성의 관계만족도 및 결혼행복도가 더 낮다는 분석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이는 한국 여성의 경우 결혼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결혼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한 유영주(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유시간이 많아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지닌 노년의 결혼생활에 관해 우려를 하게 한다.

2) 부부역할 분담 및 공유

맞벌이의 비율이 20대의 경우 15%에 불과한 반면, 30대는 20%, 40대는 37%, 50대는 45%, 그리고 60대는 53%에 달한다. 반면에 남편홀벌이는 20대의 83%, 30대의 77%, 40대는 59%, 50대는 45%, 그리고 60대는 36%이고, 아내홀벌이 가구의 비율은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2-4%에 불과한 반면 50대의 10% 그리고 60대의 11%이다(표로 제시되지 않음).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오늘날, 20-30대 젊은 층에서 어느 연령대보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낮고 남편홀벌이 비율이 높다는 결과는 의외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만을 직업을 가진 자로 한정함으로써 파트타임이나 집에서 부업을 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20-30대의 아내가 가사 및 육아에 소모하는 시간에 있어서 맞벌이 가구와 아내홀벌이 가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표 2> 참조), 이는 부부간 역할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하고 또한 그로 인해 해당

<표 2> 연령과 부부취업별 가사분담의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Scheffe test)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주당 가사시간					
맞벌이	20.8b	23.9b	18.4b	16.2b	14.8b
남편홀벌이	50.9a	45.4a	27.8a	22.2a	20.8a
아내홀벌이	16.2b	18.7b	14.6c	9.9c	10.1c
F값(df)	18.0(2)***	113.5(2)***	107.1(2)***	90.3(2)***	29.2(2)***
아내 가사비율					
맞벌이	0.7b	0.8b	0.9b	0.8b	0.8b
남편홀벌이	0.9a	0.9a	0.9a	0.9a	0.9a
아내홀벌이	0.8ab	0.7c	0.8c	0.6c	0.5c
F값(df)	27.9(2)***	133.2(2)***	105.4(2)***	189.8(2)***	106.0(2)***

주 1) +p<0.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a, b, c를 부가하여 평균차이를 표시하였다. 즉 a와 b 그리고 c는 각각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의미한다. ab는 양쪽 어디와도 평균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3> 연령에 따른 부부역할 변인의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Scheffe test)

	가사분담		여가활동	
	아내가사시간	아내비율	정적여가	동적여가
20대	45.7a	0.9b	1.1a	1.6a
30대	40.0b	0.9a	0.8b	1.3a
40대	23.3c	0.9a	0.7b	1.4a
50대	17.4d	0.9b	0.3c	1.0b
60대	15.4d	0.8c	0.2c	0.7b
F값(df)	320.5(4)***	30.5(4)***	68.7(4)***	19.5(4)***

주 1) +p<0.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a, b, c, d를 부가하여 평균차이를 표시하였다. 즉 a와 b, c, 그리고 d 각각은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의미한다. ab는 양쪽 어디와도 평균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령층 여성의 취업률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층을 불문하고 가사 및 육아의 80% 이상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표 3> 참조).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빈도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육아부담이 끝나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50-60대에 오히려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는 빈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간의 여유가 많은 50-60대의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서, 50-60대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양육기인 30-40대보다 낮게 나타난 <표 1>의 결과와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의 노년층이 갖고 있는 문제의 단면으로 파악된다.

3) 여타 주요변수들

젊은 층일수록 성역할에 관해 진보적이어서 평등지향적이고, 나이가 든 집단의수록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를 두고, 생애발달단계(age effect)의 특성으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각 출생집단(cohort effect) 나름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 사회가 성역할에 관해 점차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족경제상황에 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표 4>). 가족 경제상황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는 비슷한 경제상황에 관해서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20대의 경우 교육비 등의 지출이 적은데다가 젊음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경제적 가능성에 관해 낙관적일 수 있어서, 현재의 경제상황 역시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50-60대가 경제상황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은퇴를 경험했

<표 4> 연령별 인구학적 변인, 성장기 변인, 성역할 태도의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Scheffe test)

	교육연수	건강	가족경제상황	결혼기간	동거자녀수	부모간친밀도	성역할태도
20대	13.9a	4.3a	2.8a	3.6e	1.5b	3.6a	2.4d
30대	13.7ab	4.0b	2.7ab	9.2d	1.9a	3.6a	2.5c
40대	13.4b	3.8c	2.7ab	18.8c	1.8a	3.5a	2.6b
50대	12.6c	3.3d	2.6b	30.6b	0.9c	3.5a	2.6ab
60대	10.9d	3.0e	2.6c	39.3a	0.3d	3.5a	2.6a
F값(df)	170.4(4)***	300.6(4)***	9.0(4)***	7,583.1(2)***	763.8(4)***	1.14(4)	31.9(4)***

주 1) +p<0.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a, b, c, d를 부가하여 평균차이를 표시하였다. 즉 a와 b 그리고 c는 각각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의미한다. ab는 양쪽 어디와도 평균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의 한계와 경제적 불안감을 반영한다.

2.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결혼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은, '관계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표 5> 참조)와 '결혼행복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표 6> 참조)로 제시되었다. 우선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 종속변수와 연관되는 모습에 있어서 30-50대 연령층이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20대와 60대는 다소 이질적이다. 30-50대 연령층의 분석에서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수군에서 고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특히 취업과 가사 및 여가 등의 부부역할관련 변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60대는 가족경제와 부부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변수도 유의하지 않고, 20대의 경우엔 부부역할관련변수 대신 본인의 학력이나 건강 그리고 결혼기간이나 경제상황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의 설명력이 더 뚜렷하다. 그런데 20대와 60대의 표본크기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표준오차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관계만족도와 결혼행복도는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로 통합되는 과정상의 개념들이다. 그러나 두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하여 상관계수가 전 연령층에서 0.6을 넘지 않는다. 동일한 독립변수군에 의해 측정된 <표 5>와 <표 6>의 결과에서 보이는 부분적 차이는 관계만족도와 결혼행복도 개념이 완벽히 겹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여성의 관계만족도(척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여성의 관계만족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	s.e.	b	s.e.	b	s.e.	b	s.e.	b	s.e.
본인학력	0.21 *	0.09	0.05	0.03	0.03	0.02	0.02	0.02	0.02	0.03
보인건강	0.72 ***	0.19	0.40 ***	0.06	0.25 ***	0.06	0.24 ***	0.06	0.10	0.10
경제상황	0.72 **	0.21	0.24 ***	0.06	0.31 ***	0.06	0.23 **	0.08	0.36 *	0.14
결혼기간	-0.25 **	0.09	-0.05 ***	0.01	-0.00	0.01	0.02	0.01	0.01	0.02
동거친자녀수	0.38	0.31	0.26 **	0.08	0.02	0.06	0.04	0.07	-0.04	0.18
부모친밀수	0.14	0.18	0.16 **	0.06	0.36 ***	0.06	0.40 ***	0.08	0.17	0.13
성역할태도	-0.04	0.32	0.25 *	0.12	0.23	0.13	0.12	0.15	-0.16	0.32
맞벌이	0.64	1.16	0.34	0.30	0.60	0.24	0.85 ***	0.23	0.62	0.41
남편출벌이	0.25	1.10	0.53	0.30	0.48	0.24	1.03 ***	0.25	0.40	0.45
아내가사시간	0.01	0.00	-0.00	0.00	0.01	0.00	0.01	0.01	-0.00	0.01
아내불리비율	-2.18	1.37	-1.88 ***	0.41	-1.18 **	0.40	-2.11 ***	0.42	-0.25	0.71
남편불리비율	38.73	36.05	-4.86 **	1.63	-2.20	1.42	0.23	2.44	10.53	5.45
부부여가공유	0.02	0.05	0.17 ***	0.02	0.17 ***	0.02	0.20 ***	0.03	0.17 **	0.05
R-squared	0.28		0.13		0.13		0.14		0.09	
n	223		1,976		1,784		1,134		397	

주: +p<0.1, * p<0.05, ** p<0.01, *** p<0.001

<표 6> 여성의 결혼행복도(단일문항)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여성의 결혼행복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	s.e.	b	s.e.	b	s.e.	b	s.e.	b	s.e.
본인학력	0.07	0.05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보인건강	0.20 *	0.10	0.20 ***	0.03	0.12 ***	0.03	0.07	0.03	0.04	0.06
경제상황	0.42 ***	0.11	0.23 ***	0.03	0.25 ***	0.03	0.30 ***	0.04	0.25 **	0.08
결혼기간	-0.13 **	0.05	-0.02 **	0.01	0.00	0.01	0.01	0.01	0.00	0.01
동거친자녀수	0.15	0.16	0.19 ***	0.04	0.04	0.03	0.05	0.04	0.05	0.10
부모친밀수	0.18	0.09	0.10 **	0.03	0.16 ***	0.03	0.18 ***	0.04	0.14	0.07
성역할태도	0.45 **	0.17	0.22 ***	0.06	0.22 **	0.07	0.05	0.08	-0.16	0.18
맞벌이	-0.47	0.60	0.39 *	0.16	0.35 **	0.13	0.47 ***	0.12	0.17	0.23
남편출벌이	-0.15	0.57	0.51 **	0.16	0.44 **	0.13	0.60 ***	0.13	0.19	0.26
아내가사시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아내불리비율	-1.23	0.71	-1.09 ***	0.22	-0.69 **	0.21	-0.73 **	0.22	-0.38	0.40
남편불리비율	28.86	18.67	-0.70	0.86	-0.60	0.75	0.33	1.28	2.92	3.09
부부여가공유	-0.06 *	0.03	0.08 ***	0.01	0.06 ***	0.01	0.08 ***	0.02	0.08 **	0.03
R-squared	0.24		0.14		0.12		0.14		0.09	
n	224		1,977		1,785		1,133		397	

주: +p<0.1, * p<0.05, ** p<0.01, *** p<0.001

1) 부부 역할분담 및 공유와 결혼만족도

(1) 임금노동분담

임금노동분담상황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의 경우이다.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40대는 맞벌이 여성의 관계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남편홀벌이 가족의 아내인 반면, 50대는 남편홀벌이 가족의 아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맞벌이 여성이며, 30대는 아내의 임금노동 상황과 관계만족도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표 5). 그런데 결혼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30대에서 50대의 경우 모두에서 남편홀벌이 가족의 아내가 가장 행복하고 다음이 맞벌이 여성이다(표 6).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편홀벌이 아내가 가장 행복해 한다는 사실(표 6)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맞벌이 아내의 이중역할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부관계 자체에 한정할 경우 50대 여성과 달리 40대 여성은 맞벌이 아내가 남편홀벌이의 경우보다 관계만족도가 높다(표 5). 한편 주요 노동인구층인 30-50대에서, 아내홀벌이 가족의 결혼만족도가 남편홀벌이나 맞벌이부부에 비해 낮은 것은 예측대로이다. 남편이 주생계부양자인 것을 당연시해 온 우리 사회에서, 아내홀벌이 가정의 대부분이 '남편의 실직 혹은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역할 뒤바뀜'일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홀벌이 가족은 자신들의 내면에 각인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신들이 처한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부부간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의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2) 가사노동분담

가사 및 육아에 할애하는 절대시간 자체보다는 부부간 가사분담비율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이다.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아내 편에 불리하게 가사분담이 이루어질수록 아내가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표 5〉, 〈표 6〉 참조). 반면에 남편에게 불리하게 가사분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아내가 느끼는 결혼만족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30대 여성의 관계만족도와 관련해서만 유의하다(표 5). 즉 남편과 아내 어느 편에도 편중되지 않고 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은, 30대 여성들의 경우에 검증되었다.

결혼행복도와와의 연관성에서는,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남편이 얼마나 많이 가사에 참여해서 아내의 가사부담이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표 6). 그렇지만 본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아내의 가사부담이 최소한 남편보다 적지 않은 한도 내에서 아내의 부담 증감이 미치는 영향력이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를 ‘남편에게 불리한’ 정도의 역할분담에 이르더라도 아내 자신에게 보상적이기만 하면 만족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3) 여가공유활동

여가공유활동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표 5〉, 〈표 6〉 참조). 따라서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빈도를 늘리는 것은,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이끌기 위해서 양 배우자가 시도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이다. 다만 20대 연령층에서 여가공유활동과 결혼행복도 간에 부적인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이다. 그런데 20대의 경우 유독 표본크기가 적은 상황에서 여타 연령대와 반대로 나타난 분석결과에 관해서는, 20대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찾으려 골몰하기 보다는 해석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와 관련하여 여성 본인이 지닌 가치관이 관계만족도와 연관되는 모습은 30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서, 보수적인 여성일수록 현재의 관계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표 5). 생애발달단계상 어린자녀 양육기인 30대는 부부간의 역할분리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서(이여봉, 2008),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고조되기 쉬운 시기이다. 즉 성별역할분리에 순응하는 경향이 높은 보수적 아내가 진보적인 아내와 차별화된 인식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기가 어린자녀 양육기라는 점에서, 상기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관계만족도간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성역할 태도와 결혼행복도의 연관성은 20-40대 연령층 모두에서 유의미하다(표 6). 그래서 보수적인 여성이 부부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역할분담상황이 동일할 경우에 진보적 사고를 지닌 여성보다 더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박태은, 1983; Amato and Booth, 1995; Zvonkovic et al. 1994)과 일치한다. 다만 이는 부부간 역할분담 및 여가공유활동 관련 변수를 일정하게 통제한 상

황에서 나타나는 순효과(net effect)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진보적 사고를 지닌 여성이 부부간 역할분담이나 여가공유 등과 관련하여 평등한 상호작용을 유도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타 여건이 통제되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보수적인 여성이 더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는 선부른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3) 성장기 부모간 친밀도

성장기동안 양친 부모간의 친밀도는, 30-50대 연령층 여성들의 관계만족도 및 결혼행복도와 밀접하게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는 성장기 부모의 상호관계를 관찰하고 학습한 것이 추후 여성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회화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성장기 부모를 통해 관찰한 부부간의 친밀성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심리적 적응력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 역시 여성의 경우에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

결혼기간은 20-30대 특히 20대의 결혼만족도에 뚜렷이 부적으로 연관될 뿐,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표 5, 표 6). 결혼만족도란 결혼하는 시점에 가장 높고 신혼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낮아하는 것이 일반적임(이여봉, 2008)을 고려할 때, 비교적 신혼기에 해당하는 시기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표본에서 30대 여성의 평균 결혼기간이 9.2년이고 40대 여성의 평균 결혼기간이 18.8년이어서, 결혼 후 10여년 세월동안은 기간의 경과에 따른 열정의 감소와 적응과정에서의 좌충우돌이 결혼만족도 저하로 이어지지만 그 이후는 기간의 경과로 인한 만족도의 변화는 별반 없다는 Blood와 Wolfe(1960)의 주장과 통한다. 또한 결혼 초반에는 결혼 전에 가졌던 기준과 현재의 결혼생활을 비교하지만,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상대에게 적응하여 타성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조정문(1995)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본인의 건강에 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결혼만족도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건강과 관계만족도와의 연관성은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정적으로 연관되고, 건강과 결혼행복도와의 관계는 20-40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타 연령대에 비해 건강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60대에서 오히려 건강과 결혼만족도간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외이다.

교육수준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대

여성의 경우 관계만족도와외의 연관성뿐이다(표 5). 30대 이후의 연령범주에서는, 교육수준이 관계만족도나 결혼행복도 중 어느 것과의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는다. 반면에 현재의 경제상황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결혼만족도에 강력하게 정적으로 연관된 변수이다(표 5, 표 6). 이는 부부의 취업부담과 가사부담 및 여가활동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나타난 결과여서, 가족경제상황에 관한 인식이 구체적인 일상의 필요를 넘어서 포괄적인 정서적 여유와 연관됨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 자녀의 존재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어린 자녀의 존재는 가사부담의 증가 및 여가시간의 감소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30대 젊은 부부의 관계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가 긍정적이다. 즉 양육기의 젊은 어머니에게 어린 자녀의 존재는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서적 지원세력임이 입증된다. 반면에 여타 연령층에서는 자녀의 존재와 결혼만족도간의 연관성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청소년 혹은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의 부부역할수행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지원세력 내지 간섭원으로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자녀의 성장과 그 존재가 부모의 삶에 보람으로서 정서적 위안을 줌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자 걱정거리인 것도 사실이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부가 자녀들과 맺는 긍정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가용할 경우, 좀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V. 요약 및 토론

상기 분석을 통해 부부의 상호작용 및 배경변수들이 결혼만족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성장기 사회화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투입한 부모 간 친밀도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하여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일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인 여성일수록,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 지닌 성역할 태도의 보수성과 관계만족도 간의 관계는 30대를 제외하곤 뚜렷하지 않다. 개인이 지닌 기대수준의 높낮이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보수적인 여성이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남편과의 관계 자체에 거는 기대는 진보적인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현재의 경제상황의 영향력이 뚜렷하고 일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현실적 상황을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구체적으로 맞닥뜨리는 외적인 상황이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양육 부담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에게 어린 자녀는 결혼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결혼한 부부에게 여전히 자녀를 낳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저출산 시대의 우리 사회에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다. 즉 양육시설의 양적·질적 확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한 상황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조성될 경우, 본 분석에서 엿보인 출산동기는 실질적인 출산행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노동분담과 결혼행복도 간의 연관성에 있어서,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중장년 여성들은 남편 혼자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이 맞벌이인 경우이다. 그런데 관계만족도와 임금노동분담 간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40대 여성의 경우 맞벌이 여성이 남편홀벌이 가족의 아내보다 높은 관계만족도를 보임으로써 50대 여성층과 대비를 이룬다. 40대 여성에게 있어서 맞벌이란 단순한 돈벌이 차원에서 벗어나서 남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동반자라는 의미여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부부간 상호작용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맞벌이를 통해 경제적 수준이 상승함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육아 및 가사역할이 아내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완화되어 아내의 이중역할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면, 직업을 가진 아내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가사 및 육아역할은 양적인 부담 자체보다는 부부간의 분담양상이 어떠한 지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유관하다. 그런데 결혼만족도와 연관성에 있어서 분담의 평등성 정도가 중요한지 아니면 아내의 부담을 줄이는 정도가 중요한 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30대의 경우엔 남편에게 불리하게 가사분담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아내가 느끼는 관계만족도를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게 불리한 가사분담 사례가 많지 않아서 여타 연령대에서는 일관적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부부간 가사 및 육아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교환원리가 아니라 평등한 분담과 공유를 통한 승승(win-win)법칙일 것이라는 견해는 여전히 설득적이다.

한편 여가공유활동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일관적으로 관계만족도 및 결혼행복도와 직결된다. 부부가 같이 있고 싶고 공통적으로 특정한 여가활동을 좋아해서 함께 즐길 때, 순환적으로 그 여가활동으로 인해 상호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성장하고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행복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야 당연한 순환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상호소통의 폭을 넓히려는 행동적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감을 고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짐과 더불어, 건강과 가족경제상황에 관한 인식 및 부부여가활동의 공유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일방향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분석의 결과가 출생집단 효과인지 생애발달단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 단계로서는, 낙관적 전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앞으로 여성 전반의 건강 및 가족경제상황에 관한 인식과 부부여가활동의 공유정도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출생집단 효과이고, 나이가 들어감과 더불어 결혼만족도와 여타 관련변인들도 함께 저하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연령 효과이다. 그런데 연령효과에 입각한 우려란 평균적인 의미일 뿐, 모든 부부가 나이 들어갈수록 결혼에 관해 점차 불만스럽게 느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부 역할에 있어서의 분담 및 공유노력과 더불어 건강과 경제상황 및 여가공유활동 노력 등 관련영역들을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이 전제된다면, 연령이나 결혼기간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 변화 가능성에 맞서서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가족과 개인 그리고 관계 안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변인들을 찾는데 주목하되, 연령대를 가로지르는 공통성과 더불어 각 연령대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각 연령대가 경험해 온 시대적 경험의 차이로 인한 다양성을 관찰하였다. 그런데 10년 간격으로 연령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20세와 29세는 동일한 연령대에 속하는데 29세와 30세는 각각 다른 연령대에 속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논리적 뒷받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온 사회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세대를 구분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그 또한 해당 사건이 가족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인정될 때에 가능하고 생애발달단계별 특성을 포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실질적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안을 따른 것이지만, 연령범주를 작위적으로 구분한 데 따른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아쉬운 것은, 20대와 60대의 표본크기가 적어서 해당 연령대의 분석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20대와 60대 연령층의 분석에서 표

준오차가 부풀려져서 주요 관심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으로 인해 해당변수의 영향력 자체를 희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60대의 경우는 여타 연령대와 달리 65세까지 뿐이어서 60대 후반의 여성들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60대의 평균적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가 종종 직면하게 되는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양 배우자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면서, 부부 외의 인적 환경 즉 친족의 간섭이나 부모 부양책임으로 인한 갈등, 부부 외의 경제적·도구적 혹은 정서적 지원이나 부담 등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제한점 때문이기도 하고, 표본크기가 한정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변수의 표본오차를 부풀리고 연구의 초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한국 가족에서 친족 등의 외적 환경이 부부관계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음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이다. 추후의 연구에서, 부부 주변에서 부부생활을 돕는 지원세력이거나 혹은 갈등을 유발하는 부담으로서 적확하게 포착된 변수를 사용하여 다시금 짚어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여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차이가 생애발달 단계적 특성에 기인하는지 혹은 출생집단별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구분해 낼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패널 자료가 축적될 때 가능해질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결혼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후 부부 쌍방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paired data)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사분담 및 부부여가공유와 결혼만족도 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관한 논란 역시 가능하다. 혹자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가사 및 육아를 공유할 것이고 여가활동 역시 함께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런데 가사분담 및 여가공유활동은 행동적 측면에 주목한 개념이고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는 주관적 감정에 주목한 개념이다. 감정은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부를 수 있고 행동은 또한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부합하는 감정을 부르게 된다. 가령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고나서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에 관해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아내는 다시금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는 행위는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고, 또 결혼에 대해 만족스러운 감정이 들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실제의 행위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 이와 같은 쌍방향적 인과성에 관한 검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조만간 패널자료로서 완성되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행위(부부역할공유)가 주관적 감정 및 평가(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한 방향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의도적으로라도 부부역할을 공유하려 노력함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 이를 통해 다음 단계에서는 만족스러운 결혼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부역할을 공유하게 되는 선순환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적 노력이 필요할 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애주기와 상관없이 중요한 변인과 특정 생애주기에 적용되는 변인을 구분해 냈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의의이다.

결혼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관계 안에서 정서적 만족을 찾는 경향은 오히려 강해졌고 정서적으로 불만스러운 결혼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해체로 이어진다. 그래서 더욱 결혼만족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전 생애에 걸쳐서 중요하다. 그런데 결혼과 가족을 만족스럽게 유지한다는 것은 양 배우자의 개인적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의료지원이나 보험체계의 개선 혹은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등 얼핏 결혼만족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책들이, 건강 및 가정경제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여가활동이라는 세 차원의 부부역할을 남편과 아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업무 외의 야간 회식을 강요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풀타임의 정규직을 유지하면서도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경로의 양육지원과 육아휴직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친가족적 기업문화의 정착 등이다³⁾. 이러한 사회적 노력들은 개별가족들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더불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해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3) 근무시간 유연제라는 이름으로 파트타임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현 여성부의 퍼플잡(purple job)은, 오히려 임금노동과 가정 양 영역에서 성별 분리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문헌>

- 강진경·신수진·최혜경 (2001)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한국 부부의 사랑구조의 변화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51-66.
- 고정자·김갑숙 (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57-76.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2.
- 김미하 (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분업: 남성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가족론》 까지.
- 김정선 (2000) “건강창출의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의 역할: 문헌 고찰을 통한 분석 모델의 재구성” 《가족과 문화》 12(1): 1-29.
- 김필숙·김태현 (2004)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31.
- 박은옥 (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508-517.
- 박태온 (1983) “도시 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3) “동아시아 기혼여자대학원생들과 미국기혼여자대학원생들의 가족 및 직업역할 만족도와 긴장도: 동아시아 기혼여자대학원생들의 성역할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1(6): 29-49.
- 오순환 (2000) 《한국여가문화의 이해》 일신사.
- 유영주 (1993)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경자 (1997) “역할 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2-234.
- 이재경·이은아 (2003)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족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0: 39-69.
- 이정연 (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7.
- 이여봉 (1997) “주부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여름호): 39-52.
- _____ (1999) “부부간 평등 및 형평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1(1):

47-78.

- _____ (2008)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 개정판, 양서원.
- 이은희 (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8.
- 임정빈·고보선 (1995) “도시 신혼가계의 가족경제 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8.
- 전춘애 (1994) 《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춘애·박성연 (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86.
- 정현숙 (2001a)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90-106.
- _____ (2001b)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조성은·정지영·윤소영 (2006) “남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29-140.
- 조정문 (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가을호): 559-584.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6.
- 차승은·한경혜 (2003) “직업, 가족 그리고 중년기 신체적 건강” 《가족과 문화》 15(2): 33-60.
- 최연실·옥선화 (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83-97.
- 최정혜 (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 하상희 (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 한경미 (1995)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한경혜·장미나 (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85-115.
-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227-247.
- Amato, P. R. and A. Booth (1995)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Feb.): 58-66.
- Atchley, R. C. (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zinovacz, M., D. J. Ekerdt, and B. H. Vinick (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Sage: 145-158.
- Berry, R. E. and F. L. Williams (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al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Blood, R. and D. Wolfe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Free Press.
- Campbell, A., P. E. Converse, and W.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Drolet, A. L. and D. G. Morrison (2001) "Do We Really Need Multiple-Item Measures in Service Research?" *Journal of Service Research* 3(3): 196-204.
- Fincham, F. D. and T. N. Bradbury (1987)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3): 797-809.
- _____ and K. J. Linfield (1997) "A New Look at Marital Quality: Can Spouses Feel Positive and Negative About Their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89-502.
- Gove, W. R. and M. Hugh (1979) "Possible Causes of the Apparent Sex Differences in Physical Heal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126-146.
- Hochschild, A. R. (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Y: Metropolitan Books.
- Keith, P. M. and R. B. Schaffer (1985) "Role Behavior, Relative Deprivation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One- and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34: 227-33.
- Kessler, R. C. and J. A. McRae, Jr. (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27.

- Kingston, P. W. and S. L. Nock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91-400.
- Lamanna, M. A. and A. Riedmann (2009) *Marriages and Families: Making Choices in a Diverse Society*(10th ed.) Thomson Learning Inc.
- Lee, Y. (2003) "Measurements of Relative Values in Family Studies" *Pacific Science Review* 5: 279-282.
- Marks, N. F., J. D. Lambert and H. Choi (2002) "Transition to Caregiving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Prospective U. S.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3): 657-667.
- McRae, J. A. and C. J. Brody (1989) "The Differential Importance of Marital Experiences for Well-being of Women and Men: A Research Not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8: 237-248.
- Michaels, J. W., Edwards, J. N. and A. C. Acock (1984)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Inequality, Inequity and Outcom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4): 347-57.
- Presser, H. B. (1994) "Employment Schedules among Dual-Earner Spouse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348-364.
- Rollins, B. C. and K. L. Cannon (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1): 271-282.
- Ross, C. (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3): 816-833.
- Simon, R. W. (2002) "Revisiting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1065-1096.
- Spanier, G. B. and R. A. Lewis (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25-839.
- Voydanoff, P. (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White, J. M. (1999) "Work-Family Stage and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63-175.
- Zvonkovic, A. M., C. J. Schmiede and L. D. Hall (1994) "Influence Strategies used when Couples Make Work-family Decisions and their Importance for Marital Satisfaction" *Family Issues* 43(20): 182-188.

Conjugal Role Sharing o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Yeobong Lee

This study observes how the conjugal sharing of the roles such as breadwinning, housework/childcare, and leisure activities affects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how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nsidered variables are similar or different across age categories. Two dependent variables,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marital happiness, are measured and estimated as the concep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Analysed i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2008 collect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mong women in the ages of 30s-50s, full-time housewives with the breadwinning husbands feel happier with their marriage than the wives in dual career families, and those in dual career families are happier than the breadwinning women with the househusbands. Among the women in their 40s, the highest relationship satisfaction is reported by the those of the dual career families. Wives in their 30s prefer equal division of familywork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hile wives in the age of 40s and 50s show only the effect of reducing wives' portion. The co-spousal leisure activity is consistently significant in its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marital satisfaction across the age categories. There is a general tendency that the marital satisfaction is the highest in the youngest age bracket and the lowest in the oldest. For managing better marriages, individual efforts of both spouses as well as social support are required.

Key Words: Mari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arital happiness,
Conjugal role sharing, Co-spousal leisure activity